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903
----------	-----

발의일 : 2008. 2. .

발의자 : 정상교의원의외 7인

1. 제안이유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국도 36호선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대체하는 충청고속도로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함에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10년 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난해(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충청고속도로 건설이 2019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충주 ~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이 빈번한 신호등, 병목 구간, 교차로가 겹치고 차량의 포화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된 바 충주시민은 물론 150만 충북도민이 충청고속도로의 시급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음
-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내 착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4. 첨부 : 건 의 문 1부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님)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심을 21만 충주시민을 대신하여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당선 후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747공약’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시와 같은 내륙 소도시에는 도약발전의 호기가 되어 ‘오지(奧地)’에서 ‘요지(要地)’가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7대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고, 대운하 건설의 목표중 하나가 내륙국토 이용률 확대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년~2019년)에 충청고속도로(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국제공항~충주~강원권)건설이 중장기 검토계획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고속도로 건설이 2019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속교통망 체계는 대도시 위주로 짜여져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였고, 교통인프라가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를 권역으로 하는 중부내륙지역이 문화·관광·물류·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서·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유통이나 수송 등 산업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산과 계곡, 호수, 온천, 유적 등 경쟁력있는 관광자원도 풍부해 개발 잠재력이 어느 곳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쳐 4차선으로 확·포장된 충주 ~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은 빈번한 신호등, 병목구간, 교차로가 겹치고 왕래하는 차량이 포화상태에 이름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150만 충북도민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으며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가 동반발전하기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님)

2019년 이후면 늦습니다.

현재 4차선으로 확·포장된 70km의 국도 36호선의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된 것도 서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검토대상 계획이라고 하면

중부내륙은 발전하지 말고 침체한 채 10년 이상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충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그 동안의 소외와 침체를 벗어나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중부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 3.

충주시의회 의원일동